

METAMORPHOSES

BY

O V I D I U S

라틴어 원전 번역

#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 지음 | 천병희 옮김





〈오르페우스〉 부분, 사베리

박쿠스를 섬기던 전설적인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그가 언덕에 앉아 튀라를 연주하면 그  
늘이 그곳으로 옮겨올 정도로 산천초목과 짐승들까지 그의 연주에 귀기울였다. (10권 1행 이하)

## 오르페우스와 에우뤼디케

그곳으로부터 휘메나이우스는 사프란빛 외투를 입고  
무한한 대기를 지나 키코네스족<sup>1</sup>의 해안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오르페우스가 그를 불렀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휘메나이우스는 결혼식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축복의 말도  
해주지 않았고, 즐거운 표정도, 길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5  
그가 들고 있던 횃불도 계속해서 바지직거리며 연기를  
내뿜어 눈물을 흘리게 할 뿐 아무리 휘둘러도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 결과는 전조보다 더 나빴다.  
물의 요정들을 데리고 풀밭을 거닐던 신부가  
뱀 이빨에 복사뼈를 물려 죽어 넘어졌기 때문이다. 10  
지상에서 마음껏 아내를 애도한 로도페<sup>2</sup>의 가인(歌人)<sup>3</sup>은  
타이나루스<sup>4</sup>의 문을 지나 감히 스틱스<sup>5</sup>까지 내려갔으니,  
그는 망령들조차도 시험해볼 참이었다.  
그는 무게 없는 무리와 무덤에 묻혔던 망령들 사이를 지나  
페르세포네와, 이 사랑스럽지 못한 왕국을 다스리는, 15  
그림자들의 주인<sup>6</sup>에게 다가가 워라의 현을 치며 이렇게 노래했다.  
“오오, 필멸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되돌아오는

1 6권 710행 참조.

2 2권 222행 참조.

3 오르페우스. ‘가인’의 라틴어 *vates*에는 ‘예언자’라는 뜻도 있다.

4 2권 247행 참조.

5 1권 139행 참조.

6 플루토.

이 지하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들이시여, 거짓말과  
 애매모호한 말은 집어치우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그대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리로 내려온 것은 20  
 어두운 타르타라<sup>7</sup>를 구경하려는 것도 아니고, 메두사 같은 괴물<sup>8</sup>의,  
 뱀들이 친친 감고 있는 세 개의 목에 사슬을 채우려는 것<sup>9</sup>도 아닙니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 발에 밟힌 독사가  
 그녀에게 독을 퍼뜨려 그녀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갔으니까요.  
 나는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랐고, 아닌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려고 25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르가 이겼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쪽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신이지요. 아마 여기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납치<sup>10</sup>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모르는 그대들도 맺어주었습니다. 공포로 가득찬 이 장소들과,  
 이 거대한 카오스와, 이 광대한 침묵의 왕국의 이름으로 청하옵건대, 30  
 너무 일찍 풀린 에우뤼디케의 운명의 실을 다시 짜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대들에게 귀속됩니다. 잠시 지상에서  
 머문다 해도 머지않아 우리는 한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으로 향하고,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거처이니  
 그대들이 인간 종족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35  
 그녀도 명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그대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7 1권 113행 참조.

8 저승의 출입문을 지키는 괴물 개 케르베루스. 케르베루스는 메두사와 혈통상으로는 상관  
 이 없으므로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하도 무섭게 생겨 보는 이를 주눅들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9 헤르클레스도 그렇게 사슬을 채웠다. 9권 185행 참조.

10 플루토가 프로세르피나를 납치하여 아내로 삼았던 일을 말한다.

나는 그녀를 선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내 아내에게 그런 특혜를 거절한다면 나는 단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게 되니 그대들은 기뻐하시겠지요!”

그가 휘라를 연주하며 이렇게 노래했을 때 핏기 없는 망령들도  
눈물을 흘렸다. 탄탈루스는 도망치는 물결을 잡지 않았고,<sup>11</sup>

40

익시온의 바퀴도 놀라 멈춰 섰으며,<sup>12</sup> 새들은 간(肝)을 찢지 않았고,<sup>13</sup>  
벨루스의 손녀들은 항아리를 내려놓았으며,<sup>14</sup>

시쉬푸스여, 그대는 그대의 돌덩이 위에 앉아 있었소.<sup>15</sup>

그때 처음으로, 소문에 따르면, 자비로운 여신들<sup>16</sup>도 노래에

45

압도되어 불이 눈물에 젖었다고 한다. 왕비도,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이도 차마 탄원자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에우뤼디케를 불렀다. 그녀는 막 도착한 그림자들

사이에 있다가 상처 때문에 절룩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로도페의 영웅<sup>17</sup>은 아내를 받았는데, 그가 아베르누스<sup>18</sup>의  
골짜기를 떠날 때까지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조건도 아내와 함께  
받았다. 뒤돌아본다면 그 선물은 무효가 될 것이었다.

50

그들은 소리 없는 적막을 지나 오르막길로 올라갔다.

그 길은 가파르고, 식별이 안 되고, 짙은 안개에 싸여 있었다.

11 탄탈루스가 받은 벌에 관해서는 4권 458행 참조.

12 익시온이 받은 벌에 관해서는 4권 461행 참조.

13 티튀오스가 받은 벌에 관해서는 4권 457행 참조.

14 벨루스의 손녀들, 즉 다니우스의 딸들이 받은 벌에 관해서는 4권 463행 참조.

15 시쉬푸스가 받은 벌에 관해서는 4권 460행 이하 참조.

16 ‘자비로운 여신들’에 관해서는 6권 430행 참조.

17 오르페우스.

18 5권 540행 참조.

이제 그들은 대지의 맨 바깥 표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55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자는 아내가 힘이 달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내를 보고 싶기도 하여 뒤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아내도 도로 미끄러졌다. 그는 팔을 내밀어 그녀를 잡고 자기는 잡히려 했으나, 불행히도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바람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제 두 번 죽으면서 남편에게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60

(하긴 그녀로서는 사랑받은 것 말고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그녀는 남편의 귀에 들릴락 말락 하게 마지막으로 “안녕.”이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도로 미끌어져 갔다.

오르페우스는 아내의 두 번째 죽음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가운데 목에 사슬을 맨, 머리 셋 달린 개가 끌려오는 65

것을 보고는 사지가 돌로 변해 그 본래의 성질을 버린 뒤에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쟁이나,<sup>19</sup> 아내의 죄를 뒤집어쓰고는 제 자신이 죄인처럼 보이려 했던 올레노스와, 불행한 레타이아여, 자기 미모를 과신했던 그대와 다르지 않았소. 그대들은 전에는 서로 더없이 가까운 가슴이었으나 지금은 물기 많은 이다산 위에서 두 돌이 되었소.<sup>20</sup> 70

오르페우스는 또다시 강을 건너고 싶어 간청해보았으나 소용없었다. 뱃사공<sup>21</sup>이 거절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누추한 모습으로

19 헤르쿨레스가 사슬에 매어 끌고 온 케르베루스를 보고는 겁이 나 돌로 변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헤르쿨레스에게 12고역을 시킨 에우뤼스테우스는 에뤼만투스 산의 멧돼지가 끌려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독 안에 숨었다고는 하나 돌로 변하지는 않았다.

20 아내 레타이아가 어떤 여신보다 제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자 남편인 올레노스가 그 죄를 자신이 덮어쓰고는 둘 다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레 동안 케레스의 선물<sup>22</sup>도 즐기지 않고 거기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근심과 마음의 괴로움과 눈물이 그의 양식이었다. 75  
에레부스<sup>23</sup>의 신들은 잔인하다고 불평하며 그는  
높은 로도페와 북풍에 채찍질당하는 하이무스<sup>24</sup>로 돌아갔다.

티탄<sup>25</sup>이 한 해를 마감하는, 물 많은 물고기자리<sup>26</sup>에  
세 번이나 이르렀다. 그동안 오르페우스는 사랑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든, 아니면 언약을 했기 때문이든 여자와의 80  
사랑은 일절 꺾혔다. 하지만 많은 여인이 가인과 결합하기를  
열망했고, 많은 여인이 퇴짜를 맞고 비탄에 잠겼다.  
게다가 그는 트라키아의 백성에게 부드러운 소년들을  
사랑하는 법과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의 짧은 봄과  
청춘의 첫 꽃을 따는 법을 가르쳐주었다.<sup>27</sup> 85

## 나무들의 목록, 퀴파릿수스

그곳에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위에는 푸른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탁 트인 평평한 땅이 있었다.

21 카론.

22 음식.

23 카오스의 아들로 암흑의 신. '저승'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24 2권 219행 참조.

25 태양신. 1권 10행 참조.

26 Pisces. 황도 12궁 가운데 맨 마지막 궁으로 태양이 이 별자리에 이르렀다 함은 겨울이 끝났다는 뜻이다.

27 그리스의 다른 지방이나 신들 사이에서는 미소년을 향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 오르페우스의 죽음

트라키아의 가인이 그런 노래로 숲과, 야수들의 마음과,  
바위들을 뒤따라오도록 인도하는 동안  
보라, 가슴에 야수의 가죽을 걸친 채 광란하던,  
키코네스족<sup>1</sup> 여인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뤼라 현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오르페우스를 보았다. 5  
그러자 그중 한명이 미풍에 머리털을 흔들며 “저것 봐요.  
저기 우리를 경멸하는 자가 있어요!”라고 말하더니 아폴로의  
가인의 낭랑한 입을 향해 창을 던졌다. 하지만 나뭇잎을 감은  
창<sup>2</sup>은 목표물을 맞히긴 했어도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또 다른 여자가 돌을 던졌는데, 그것은 공중을 날다가 10  
목소리와 뉘라의 화음에 제압되어 마치 그런 미친 짓을  
감행한 데 대해 사죄라도 하는 듯 그의 발 앞에 굴러떨어졌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 공격이 더욱 거세지며 절제가 사라지자,  
광기 어린 복수의 여신이 그곳을 지배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모든 무기가 그의 노래의 매력 앞에 무력해졌을 것이나, 15  
엄청난 소음과, 구부정한 빨이 달린, 베레퀸테스족<sup>3</sup>의  
피리 소리와, 북소리와, 박수 소리와, 박쿠스신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기타라 소리를 압도해버렸다. 그리하여 결국 더이상 그 목소리를

1 6권 710행 참조.

2 튀르수스 지팡이.

3 Berecyntes(그/ Berekyntes). 소아시아 프뤼기아 지방에 살던 부족으로, ‘베레퀸테스족의’는 흔히 ‘프뤼기아의’라는 뜻으로 쓰인다.



들을 수 없는 가인의 피로 돌맹이들이 붉게 물들었다.

마이나스<sup>4</sup>들은 먼저 여전히 가인의 목소리에 넋을 잃은 20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와, 뱀과, 야수의 무리를

잡아 죽였는데, 이것들은 오르페우스의 명성이자 청중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오르페우스에게 향하며

그의 주위로 몰려드니, 그 모습은 밤의 새<sup>5</sup>가 낮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의 새떼와 같았고, 이른 아침 원형극장의 모래밭에서 25

죽게 된 수사슴이 개 떼의 먹이가 될 때와 같았다. 그들은

가인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푸른 덩굴이 감긴 튀르수스 치광이를

던졌는데, 그것은 이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여인들은 흙덩이를, 저 여인들은 나뭇가지를 쪼어 던졌으며,

일부는 돌맹이를 던졌다. 그리고 그들의 광기에 무기를 30

대주려고 마침 소들이 쟁기를 깊숙이 끌며 땅을 갈고 있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건장한 농부들이 비지땀으로

수확을 늘리려고 단단한 땅을 파고 있었다.

이들은 여인들의 무리를 보자 일하던 도구를 버려둔 채

줄행랑을 쳤다. 빈 들판에는 팽이와 목직한 쇠스랑과 35

기다란 곡괭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난폭한 여인들은

농기구를 집어 들고 우선 빨로 자기들을 위협하는

소를 갈기갈기 찢고 나서 가인을 죽이러 갔다.

두 손을 내밀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의 말은 아무 소용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40

4 '광란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박쿠스의 여신도를 말한다.

5 부엉이. 2권 564행 참조.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신성을 모독하는 여인들이 그를 죽이자,  
맷소사, 바위도 귀기울이고 야수도 알아듣던 그 입술 사이로  
목숨이 빠져나오더니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오르페우스여, 슬퍼하는 새도, 야수의 무리도,  
단단한 바위도, 종종 그대의 노래를 쫓아다니던 숲도

45

그대를 위해 울었소. 나무는 잎을 벗고 삭발한 채  
그대를 위해 슬퍼했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강물도 제 눈물로  
붙어났고, 물의 요정들과 나무의 요정들도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쳤다고 한다. 가인의 사지는 사방에 흩어졌으나,  
그의 머리와 튀라는, 헤브루스<sup>6</sup>여, 그대가 받았소. 그리고

50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것들이 강 한복판을 떠내려가는 동안  
튀라는 뭔지 알 수 없는 슬픈 소리를 냈고, 숨이 끊어진  
혀는 슬피 중얼거렸으며, 강둑은 이에 슬피 화답했다.

어느새 그것들은 고향의 강물을 떠나 바다로 떠내려가서  
메톱나<sup>7</sup> 시 근처의 레스보스<sup>8</sup> 해안에 닿았다.<sup>9</sup>

55

그곳에서 이방의 모래 위에 드러난 그의 얼굴과  
바닷물이 푹푹 듣는 그의 머리털을 사나운 뱀이 공격했으나  
마침내 포이부스가 나타나, 물려고 하던 뱀을  
몰아내더니 뱀의 짝 벌어진 입을 돌로 변하게 하고

6 2권 257행 참조.

7 레스보스 섬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

8 2권 591행 참조.

9 그래서 레스보스 섬은 삽포(Sappho), 알카이오스(Alkaios) 등 뛰어난 시인을 배출했다고 한다.

열린 턱을 그대로 굳어지게 했다.<sup>10</sup>

60

그의 그림자는 대지 아래로 내려가 전에 보았던 장소를  
모두 알아보았다. 복 받은 자들의 들판<sup>11</sup>을 찾아 헤매다가 그는  
에우뤼디케를 발견하고는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나란히 함께 거닐고 있다. 때로는 앞서가는  
그녀를 오르페우스가 뒤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앞서가며  
지금은 안전하게 에우뤼디케를 뒤돌아보기도 한다.<sup>12</sup>

65

하지만 튀아이우스<sup>13</sup>는 그런 범행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으니,<sup>14</sup> 자신의 비의(秘儀)<sup>15</sup>를 노래하던

가인을 잃은 것을 슬퍼하여, 만행을 본 에도니족<sup>16</sup>의  
모든 여인을 즉시 나무뿌리를 꼬아 숲속에다 묶고는,

70

그들의 발가락을 그들 각자가 그때 오르페우스를 추격한 거리만큼  
길게 늘어뜨린 다음 그 끝을 단단한 대지에 박아버렸다.

마치 새가 교활한 사냥꾼이 쳐놓은 올가미에 다리가 걸리면  
걸렸다는 것을 느끼고 날개를 퍼덕거리려 보지만

버둥대면 버둥댈수록 올가미의 끈이 더 단단히 죄어들듯이,  
꼭 것처럼 이 여인들도 땅에 단단히 들러붙자 질겁하고

75

10 이 텍스트에만 나오는 이야기이다.

11 ‘복 받은 자들의 들판’(arva piorum)은 그리스신화의 ‘엘뤼시온 들판’(Elysiion pedion) 또는 ‘복 받은 자들의 섬들’(makaron nesoi)을 말한다. 신의 사랑을 받는 소수의 사람은 죽는 대신 대지의 서쪽 끝에 있는 이곳으로 보내져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12 오르페우스와 에우뤼디케 신화의 이러한 해피엔딩은 오비디우스의 창작이다.

13 4권 11행 참조.

14 이 에피소드는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5 오르페우스 비의도 박쿠스 신이 주재한다.

16 Edoni(그/Edonoi 또는 Edones). 트라키아의 스트뤼몬 강변에 살던 부족.

저마다 달아나려 안간힘을 썼으나 소용없었다. 단단한 뿌리가  
꼭 붙들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은 어디 있고, 발은 어디 있으며, 손톱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이에 나무껍질이 날씬한 장판지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속이 상해 허벅지를 치려고 했으나,  
그들이 친 것은 참나무였다. 가슴도 참나무가 되었고,  
어깨도 참나무였다. 그대가 그들의 긴 팔을 나뭇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닐 것이오.

80

## 미다스

박쿠스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그곳의 들판을  
떠나 더 선량한 무리를 거느리고 티몰루스<sup>17</sup> 산의 포도밭과  
팍톨로스<sup>18</sup> 강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 강은 당시만 해도  
금이 나지 않았고, 값진 모래 때문에 시샘을 사지도 않았다.  
평소에 그를 따르던 무리인 사튀루스들과 박쿠스의 여신도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으나, 실레누스<sup>19</sup>는 없었다. 나이가 많은 데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실레누스를 프뤼기아의 농부들이  
사로잡아 화환으로 묶은 다음 미다스 왕에게 데려갔던 것이다.

85

90

17 티몰루스에 관해서는 2권 217행 트몰루스 참조.

18 팍톨로스에 관해서는 6권 16행 참조. 이 강은 사금(砂金)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19 4권 주 17 참조.